

## Delineating and Defining School-Based Arts Therapy

Chong, Hyun Ju\*

Arts Therapy Education is an area under major arts therapy field which focuses on the children in school setting who ha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and the need of it has been increasing as for after-school programs. The study purports to delineate arts therapy education by identifying the elements that differentiate from the major arts therapy approaches, respectively. Arts therapy education is an integrated approach which focuses on primarily alleviating children's emotional problem through therapeutic experiences of arts, and then secondarily helping them to actualize their potentials in learning and achieve educational outcomes. It is also examined that arts therapists working in school setting who need to acquire knowledge in education related theories and further be able to work with emotional, psychological issues from ecological factors. Also it is needed to seek efficient strategies to promote professionalism of arts therapy education.

*Keywords : Arts therapy education, Music therapy education, Art therapy education, Dance/movement therapy educati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children mental health*

---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예술치료교육의 개념 정립과 정의

정현주\*

예술치료교육은 예술치료의 하위개념으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념화 되고 있는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중심의 예술치료교육의 대상, 목표, 예술매체의 치료적 특성을 살펴보고 개념 정립과 정의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예술치료교육은 음악, 미술, 그리고 운동/동작 등의 예술매체를 사용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교육적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전반적 성장을 돕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다. 예술치료교육은 예술치료와 학교라는 현장성, 학교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치료 목표도 타 임상 현장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방과 후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따라 예술치료교육 전문성 강화 방안과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예술치료교육, 음악치료교육, 미술치료교육, 무용동작치료교육, 정서행동문제, 아동 정서건강

---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 (hju@ewha.ac.kr)

## I. 서론

최근 들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대두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요구는 교육환경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는 학습 부진을 포함하여 정서·행동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확대되어가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처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대두되는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는 학교 부적응에서부터 학습 장애, 그리고 주의 산만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학습적인 문제 외에도 소극적이고 위축된 아동, 불안하고 우울한 아동, 연령에 비해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는 아동,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등 다양하다(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2005). 이러한 아동들의 정서 행동 문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내용 및 목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기적성의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예술치료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요구되었고,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학교현장에 제공되고 있는 예술치료교육에 대한 평가,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술치료교육은 2004년부터 방과후 학교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학교 부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방과후 학교 내의 치료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개설되어 왔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서 및 행동문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예술매체의 치료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료적” 목표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강화하여 학습에 전이하도록 하는 “교육적” 목표를 접목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성하여 제공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와 같은 각 예술치료의 전문 분야 내에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예술치료교육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정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예술치료교육의 개념 정립

예술치료교육은 음악, 미술, 그리고 운동/동작 등이 포함된 예술매체를 주로 사용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 전반적 성장을 하도록 돕는 접근 방법이다. 이는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정서·행동에 문제에 대한 ‘치료’와 학습수행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합한 접근이며 또한 먼저 아동의 심리정서 안정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개입을 시행해야한다는 논거를 전제로 한다. 치료적으로는 예술의 치유적 특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정서함양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그들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며, 교육적으로는 예술 매체를 활용한 활동들을 통해 학습 기술 능력을 촉진시키고 도모한다. 따라서 치료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수행력과 심리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방법으로 현재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고도 거시적인 접근방법이라 하겠다.

예술치료교육은 각 예술 매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예술치료 영역의 하위개념이다. 예술치료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가 주이며, 이 외에도 표현예술치료, 연극치료, 영상치료 등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치료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크게 치료 영역은 의료/임상(medical/clinical), 사회재활(communitary rehabilitative), 그리고 치료 교육(therapy/education)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각 영역의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그림 1> 참조). 의료/임상 영역의 경우엔 병원이나 정신보건기관들이 속하고, 사회재활 영역의 경우 복지관, 쉼터, 보호기관 등의 지역사회기관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치료교육의 경우엔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비장애 아동,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등이 포함된다. 예술치료교육은 이 세 분야 중에서도 치료·교육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상, 장소, 그리고 목표가 교육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특성화된 새로운 개념이다.



〈그림 1〉 예술치료의 영역

예술치료와 예술치료교육의 공통점은 예술의 미적 체험과 비언어적 표현, 창의성,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승화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감정이나 에너지를 예술적 경험 내에서 다루어주는 것이다(정현주, 정여주, 김나영, 2006). 이에 더 나아가, 예술치료교육은 예술, 치료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

한 세 영역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전제를 개념적 기반으로 한다.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와 같은 예술 매체를 중심으로 한 치료 분야는 20세기 초반부터 꾸준하고 이론과 실재가 발전되어 서구에서는 현재 전문 분야로 기반을 잡아왔다. 치료교육(Heilpädagogik)은 1861년 독일 의사인 Georgens와 Deinhardt가 먼저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Buchkremer, 1990). 이들의 관점은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심리 치료적 접근이 접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념화되었다(Haeblerlin, 1990; Speck, 1991). 또한 Speck(1991)은 치료교육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소외를 겪는 대상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인간학적으로 전체성에 근거한 교육이며,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보완적 교육 형태로서 인접학문과 상호협동 관계를 지닌 학문으로 규정하였는데(정여주, 2006), 이러한 시각은 바로 예술치료교육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치료와 예술치료교육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용 현장과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술치료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발달적, 기능적, 또는 병리적 문제에 따른 예술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며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 각 기관의 의료진, 예술치료사, 사회복지사의 협력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표 1> 참조).

이에 반해, 예술치료교육은 성장과정이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내적 문제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또래관계에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대상의 문제 행동 및 정서는 대표적으로 공격성,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 무기력, 우울성향, 불안, 비행, 등교거부, 학대피해 등이다.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적 매체를 중심으로 장애로 인해 기능강화 활동을 제공하되, 결과물 보다는 과정에서의 치료적 체험과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두 번째 차이점은 두 접근이 강조하는 목표영역이다. 예술치료의 경우 대상의 문제가 확인된 심리, 사회·정서, 지각·인지, 운동·신체, 언어·의사소통 영역에서 보다 더 나은 기능 강화를 위해 예술치료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예술치료교육은 학교현장에 초점을 두는 만큼, 아동의 심리·정서적 변화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고 또래관계 개선과 잠재된 학업 능력 및 효율성 증진을 가져오는 데에 목표를 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치료교육의 경우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예술체험과 표현, 예술 활동을 통한 관계형성과 신뢰감 형성, 창의성 개발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기수용, 학습과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 기본 학습 기술 및 개념, 사고 능력, 대인관계 기술, 갈등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교 적응력 증진과 학습동기를 강화해주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기존의 방과후 학교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그리고 운동/동작 등이 포함된 예술매체를 주로 사용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표 1〉 예술치료와 예술치료교육의 차이점

| 요인  | 예술치료   | 예술치료교육  |
|-----|--|---|
| 대상  | 심리 치료적 문제에서부터 병리적 문제를 가진 대상, 또는 심리 재활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대상까지를 모두 포함.                  | 성장과정에서의 외상이나 환경적 문제로 인해 학교 부적응 및 정서문제로 인한 학습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까지 포함.                        |
| 현장  |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개인 임상 클리닉, 정신과 병원, 노인전문 기관 등.  | 학교, 사회복지관, 위탁 교육기관, 예술치료 관련 기관.   |
| 목표  | 대상의 필요에 따라 정신, 신체, 감정, 사회 정서, 의사소통 영역 등 모든 발달 영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내적 건강, 사회 적응력 및 자아실현을 도모함. | 학교 부적응 및 학습 문제를 야기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의 치료적 접근과 이를 통해 완화된 잠재력 증진, 학습동기 강화 등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강화함. |
| 강조점 | 예술매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특성을 활용한 접근.   | 예술 매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 문제 완화를 위한 치료적 특성과 예술적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학습관련 기술들을 교육과 접목하는 통합적 접근.                |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 전반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로 구성되고 제공되어 왔다.

### Ⅲ. 예술치료교육의 목표

일반학교의 방과 후 학교 치료교육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되며 이에 는 학습 동기 강화, 상호작용 기술, 충동조절력 증진, 자긍심 및 자존감 향상 등이 포함된다.

#### 1. 학습동기 강화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력을 학습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에 는 정보의 기억, 저장, 인출, 응용력, 문제해결력, 집중력, 추리력, 사고력 등 다양한 세부 인지기술이 포함된다. 학습부진은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기술이 결여됨으로써 학습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학습부진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동기 결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경의 요구와 도전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문제 해결의 속도나 반응시간이 또래보다 더 오래 걸리므로 학생들은 긴장이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한 정서가 지속되면 학습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자긍심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습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먼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성공적인 과제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과제를 통해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제공한다면, 과제 참여 동기가 증가하게 된다. 예술치료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에 부정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내면적인 상처에 대한 치유와 과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속되는 실패감과 동기저하로 야기되는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잠재된 학습능력을 촉진시켜준다.

## 2. 상호작용기술

일반 학급에서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긴장, 불안, 두려움이나 슬픔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관계형성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의 내적 기제가 사고, 감정, 행동과 같은 자연스러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치료교육은 사회성이 결여되고 감정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 적절한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그룹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불편해 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아동의 경우 치료교육 활동에서는 공통적인 관심 혹은 주제를 다룬 활동을 통해 그룹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또한 소극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자기표현을 하지 못했던 대상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그룹 활동은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함께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또래 및 치료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

## 3. 외현화된 정서와 충동성 감소

아동들의 부정적 정서가 외현화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에너지가 충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표출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인다. 충동성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조절이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환경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충동 조절력 또는 자기 절제력의 결핍은 과격한 행동은 물론 더 나아가 지나친 부주의 또는 산만한 정서를 동

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치료교육에서 활용되는 활동들은 충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조절하고 그 에너지를 예술적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그룹 작업을 통해 타인을 인식하고, 기대되는 행동과 적절한 규율들을 의식하고 따름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4. 내재화된 정서와 우울감 감소

아동들의 정서 문제가 내재화되는 경우 우울감과 무기력감, 또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자기 위축을 보인다. 아동이 우울한 경우 동기를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된다. 일상의 일에 대하여 무기력감을 느끼므로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또한 자기 표현력도 낮아지며 또래와의 관계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등 사회성 문제도 보인다.

예술치료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재화된 정서문제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치료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에서부터 매체를 통해 경험하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또래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내재된 에너지를 예술이 가진 비언어적 특성을 통해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켜준다.

## IV. 예술매체의 치료·교육적 특성

### 1. 음악

음악치료교육은 음악의 치료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아동의 심리 정서적 변화와 수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부적응 문제, 또래 관계 문제, 학습수행력 등을 증진시키고 하는 치료와 교육적 목표가 통합된 접근을 의미한다. 비언어적 매개체로서의 음악을 이용하여 아동들의 충동 조절과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연주나 음악 만들기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정서 및 행동 수정을 도모한다.

음악치료활동에는 정서기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 ‘창작활동’은 음악의 미적인 특성과 음악적 사고를 통해 음악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자신의 감정과 억압된 에너지를 탐색하고, 자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정서를 순화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으로 연결된다. ‘악기 연주’는 내담자의 성향



과 성격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극적인 악기 연주나 연주에 대한 저항은 자신감이나 자기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기 연주를 통해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음악 감상’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게 하며 무기력한 에너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즉흥 연주’를 통해서 감정을 승화시키거나 정화시키고 자신만의 연주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동안 치료사의 반영과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학습문제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은 다양하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학습영역 프로그램은 학습기술에 필요한 기본 인지력과 이해력 그리고 문제해결력에 치료목표를 두고 구성된다. 집중력이 결핍되어 학습의 지속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주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형식을 알게 하고, 연주 시점과 방법을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다. 또한 고/저, 강/약을 통한 청각적 인지자극을 통해서도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고, 감각통합과 지각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학습부진이 나타날 경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가창, 작곡을 함으로써 소리를 지각하고, 시각, 촉각 정보를 수용하며 연주하는 행동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인지기술을 강화시킨다. 읽기 기술은 노래 가사를 배우으로써 발달시킬 수 있는데, 가사 배우기는 언어적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글 읽는 기술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노래 가사는 반복적이므로 예측적인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 보다 더욱 쉽게 읽기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또한 악기음색에 대한 인지는 청각, 지각력과 구별력을 강화시키고, 악보에 그려진 음표를 해석하고 소리로 환원하는 작업은 추상적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고도의 인지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가창, 연주, 작곡 활동은 인지기술을 발달시키며 연주활동은 과제 수행력,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음악 작업에서 유사한 특정 패턴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분하는 ‘덩이짓기’는 청각정보처리에 필요한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되는 추상적 사고의 이해는 리듬의 시간적 구조와 선율의 공간적 구조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음악적 활동을 통해 학습시키고 특정 형식과 전개를 중심으로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사회 정서 영역에 있어 학교에서 형성되는 또래 관계는 아동들의 적응력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부적절한 표현을 표출하고 이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에 문제를 갖게 되는 등 사회 영역에 문제를 갖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 양육환경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긴장, 불안, 두려움이나 슬픔과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아동의 내적 기제가 사고, 감정, 행동과 같은 자연스러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 우울한 경우 동기를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비판적 시각

과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적 정서가 지속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무기력감을 느끼므로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음악활동은 공동 작업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 영역의 훈련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또래와 어울려 만들어 가는 음악 과제를 통해 집단 역동성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공통적인 관심이나 주제를 다룬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룹 구성원과 치료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기표현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나 소극적인 성향이 많은 경우 음악이나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2. 미술

미술치료교육은 정서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지닌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현장에서 미술 매체와 기법을 적용하여 정서 및 심리사회적 문제 회복 및 성장을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 동기 강화와 수행력 증진에 교육적 목표를 둔 치료적 접근이다. 미술치료교육의 목적은 미술의 비언어적, 시각적, 창의적 상징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 성취감, 정서적 안정, 내적 조화와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며, 학습 능력과 학교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치료교육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감각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문제나 장애를 교육적 관점과 치료적 관점을 통합하여 구성된다.

아동은 미술의 일차적이고 직접적 표현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갈등, 상상, 욕구, 소망 등과 같은 내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투사한다. 미술치료교육에서는 아동의 자기투사적 표현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아동이 외적으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미술치료교육은 미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술의 시각적, 상징적, 유희적 활동에 근거하여 미술의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하여 정서를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긴장 및 불만을 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들은 정서적, 심리적 해방감과 마음의 정화를 경험한다. 미술치료교육의 정서영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심리적 긴장 완화, 감정표현의 다양화, 자기수용력, 타인과 환경에 대한 개방성, 자존감 향상, 자기결정력, 자기통제력, 자율성 등의 증진이다.

학습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교육에서는 주제, 기법, 매체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구상, 표현을 통하여 응용력, 아이디어의 증가,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관찰력 향상, 활동 평가 및 비판 능력이 증진된다.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작품과 집단원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 및 미적 발전 등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시도함으로써 집중력 향상, 동기유

발, 판타지와 상상력과 창의성 개발, 현실감 증가 등이 개발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환경이 처한 문제들을 의식하고 현실적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학습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청소년의 내적 자원을 회복하게 한다.

심리 사회적으로 아동들은 미술 경험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집단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문제가 집단원들도 함께 극복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협동심, 배려, 나눔, 공동체 의식 등이 향상된다. 구체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주제, 재료,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융통성과 집단의식이 이루어지며, 소속감과 집단책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집단원들의 비언어적, 언어적 지지는 자신감을 높여주며, 또래집단에서 안정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점은 아동·청소년이 자신감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의 입장과 권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성의 바탕이 된다.

### 3. 무용·동작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단순하며 직접적인 것은 신체 움직임이다. 언어 발달 이전의 유아기에는 자신의 모든 욕구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김나영, 2001). 언어가 발달된 이후의 유아와 아동들도 언어적 표현보다 신체적 움직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놀이나 대인관계 형성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용·동작 치료교육은 신체 움직임을 치료교육의 매개체로 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쉽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치료교육의 접근이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학교 및 교육 기관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입시교육과 지적 만족우선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이들의 심신을 제한적이고 편향적으로 발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김나영, 김현진, 2006). 많은 시간을 고정된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는 변화 없는 생활 리듬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경험을 제한하여 창의적 사고의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신체 움직임 표현 및 활동의 제한과 기회의 부족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 움직임을 통한 정서표출 경험의 부재를 야기하여 과잉행동의 출현이나 충동행동조절의 어려움을 낳기도 하며,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인 교우관계나 사회적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모호한 감정의 불균형은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용·동작의 치료교육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즉흥무 등의 움직임 표현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공간 개념을 이해하여 타인과 나를 구분하고, 움직임 표현의 질적인 다양성을

경험하여 정서표현의 적절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나의 신체의 크기, 제한된 공간에서의 타인의 신체 움직임 수용의 경험은 아동의 사회 관계성을 발달시킨다. 아동은 화나고 슬프고 혹은 외로운 등의 정서인식을 가볍고, 활기찬 리듬의 점프로 표출하거나, 분노하고 불안하고 혹은 긴장되는 정서인식을 강하고 순간적으로 빠른 편치로 표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서인식과 신체 에너지의 변화 경험은 현재 지니고 있는 정서를 재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기회가 된다. 일반 체육활동에서 실행되고 있는 신체 움직임의 반복 훈련과 주입식 규칙의 이해와는 달리, 무용·동작 치료교육은 아동이 스스로 자율적이며 창의적 훈련과 규칙을 만들며 자신이 인정하고 만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일반적 체육이나 운동수업에서 아동이 갖는 기능향상의 경쟁이나 좌절의 경험보다는 신체 움직임으로 경험하는 용기와 탐험은 긍정적 자아상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며(Hawkins, 1982), 이는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존재의 존엄성을 배운다. 또한 언어적 장애, 정신적 충격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도 단순한 움직임이나 활동적인 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창작적·감각적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김나영, 김경은, 장경호, 2006).

인지적으로 무용 및 신체 움직임의 창작 과정은 고유하고 특별한 사고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곧 아동과 청소년기의 창의적 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Kauffman, 2006). 치료사는 무용·동작 치료교육의 목적에 따라 자발적인 창의적인 신체 움직임 표현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집단의 리더의 결정에서부터 규칙과 표현 방법까지 참여아동과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참여자들 간의 신체 움직임 표현의 의사결정 문제의 대립은 자연 발생적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무용·동작 치료교육은 이러한 자연 발생적 문제의 해결을 창의적 무용교육의 요소인 대조, 반복, 움직임 절의 인식,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식의 인식 등의 요소들의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아동의 문제 해결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 움직임으로 야기된 문제를 신체 움직임으로 해결하는 경험은 다른 아동의 움직임을 관찰, 비판적 사고, 움직임 형식과 구조의 인식 등을 강화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한다.

사회·정서적으로 무용은 신체 통한 움직임의 표현과정으로 개인의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다. 무용은 이러한 즐거운 표현과정의 공감을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한 원형대형의 무용 및 신체 표현활동 경험에서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느끼게 하며 사회적 결속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김나영, 김경은, 장경호, 2006). 특히,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이나 과잉행동문제로 인해 집단 작업이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듀엣이나 트리오 혹은 그 이상의 집단무의 경험을 통하여 협동성과 성숙한 존중성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다른 아동과의 신체접촉,

공간의 나눔, 순번의 수용, 통일성, 리더십 등이 무용동작 치료교육을 통하여 경험되며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무용·동작 치료교육은 방과후 학교는 물론 일반 정규교육과정에서 일반아동과 장애를 가진 아동이 통합 혹은 구별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신체 움직임 표현의 경험과 탐색을 통하여 자기성장 및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한다(Adler, Espenak & Lowen, 198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와 같은 전문화된 치료영역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에서 부각되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이에 따른 치료적 목표와 치료매체의 특성과 접근, 타임상 현장과는 차별화된 영역으로서의 개념 정립과 정의를 고찰하였다.

예술치료교육은 음악, 미술, 그리고 무용·동작 등의 예술매체를 사용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교육적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전반적 성장을 하도록 돕는 접근 방법이다. 다시 말해,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치료’와 학습수행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합한 접근이며 또한 먼저 아동의 심리정서 안정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치료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수행력과 심리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치료교육이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특성화하여 개념화된 접근인 만큼 학교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은 치료사들의 역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학적 기반 및 발달적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병리적 문제가 아닌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정서 행동 문제에 관한 통찰력과 치료 기술을 숙지하여야 한다.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예술치료교육의 활성화는 여러 차원에서 학교현장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치료 차원에서 예술치료교육은 기본 정서를 다루어주고 더 나아가 학습에 필요한 동기와 태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술치료교육은 배움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실현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궁극적으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예술치료교육은 정서·행동 문제가 없는 다른 아동들에게 정서 함양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술 활동은 아동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전달하게 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

대를 형성하고 심리적인 지지와 안정을 줄 수 있다. 특히 창작 활동에서는 아동이 완성한 작품이 시각적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예후를 파악하고, 심각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증상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교육과 함께 건강한 발달증진과 정서지원을 통한 아동의 정신 건강, 안정된 정서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예술매체를 활용한 치료교육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교실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정신보건사업 등에서 그 효율성이 인정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교육현장에서 상승하는 것에 비해, 각 프로그램들이 학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공유 및 치료사의 전문성 담보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술치료교육의 전문화 전략과 현장 연계 활성화에 따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나영 (2001).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무용/운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김경은, 장경호 (2006). 체이스의 리듬적 요소를 강조한 무용/동작치료가 ADHD의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1), 379-391.
- 김나영, 김현진 (2006). 무용/동작치료가 여고생들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6(6), 99-115.
-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2005). 2005년도 역학사업보고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
- 정여주 (2006).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치료교육의 의미와 역할. **정서행동장애연구**, 22(2), 239-262. 재인용.
- 정현주, 정여주, 김나영 (2006). 방과 후 학교의 치료교육 실태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방안연구. 대통령 비서실.
- 한국교육개발원 (2005).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 실태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dler, Espenak & Lowen (1981). *Dance therapy: Theory and applications*.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Buchkremer, H. (1990). Heil-/Sonderpädagogik. In. Bach, H. (Hrsg.)

- Haeberlin, U. (1990). *Das Menschenbild für die Heilpädagogik*. Stuttgart: Haupt.
- Hawkins, A. M. (1982). *Modern Dance in Higher Education*. Los Angeles: Congress on Research in Dance.
- Kauffmann, K. A. (2006). *Inclusive Creative Movement and Danc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 Speck, O. (1991). *System Heilpädagogik: Eine ökologisch reflexive Grundlegung*. München: Reinhardt.

- 게재신청일: 2008. 09. 25.
- 수정투고일: 2008. 10. 15.
- 게재확정일: 2008. 10. 24.